우결현결(愚決賢結)

(행6;8~15)

8.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9. 이른 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새
10.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11.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12.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13.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14.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 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15.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우결현결(愚決賢結)>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합니다.

'우결현결(愚決賢結)'

우결현결(愚決賢結)이라는 말은 아마 못 들어 보셨을 거예요.

제가 우문현답(愚門賢答)이라는 말을 패러디해서 만든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문현답(愚門賢答), 어리석은 질문에 현명한 대답으로 대응하는 것을 표현할 때 쓰는 말 아닙니까?

근데, 우결현결은, 어리석은 결정, '결(決)'이 결단할 때 결정, 현결은 아주 바람직한 결과, 이 '결(結)'은 맺을 결자를 써서, 우결현결(愚決賢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생각해 봅니다.

먼저 질문부터 한번 하면 좋겠어요.
어제 우리가 본 대로 사도들이, 교인이 수천 명으로 불어나게 되면서, 집과 밭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하는 자들이 생기니까 재정이 또 생기게 되고,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교회 내의 핍절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는 구제와 봉사의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도들한테 돈을 갖다 주니까, 사도들이 그 돈을 가지고, 물건을 사고 음식을 사고, 뭐 이렇게 나누어 주고 하는 이런 일에 관여를 하게 되면서, 사도들이 아차 싶은 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자기들이 그 일을 하느라고 기도와 말씀사역에 차질이 생기는 겁니다.
이때 깨닫고 기도와 말씀사역에 전념하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잘한 거지요.
그리고 일곱 집사를 뽑게 됩니다.
자! 여기서 질문을 해 봅니다.
기도에 방해가 되고 말씀사역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꺼려져서 봉사와 구제의 일을 중단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사역에 전념하는데 방해가 되게끔 된 그 일들, 봉사와 구제의 일은 뽑히게 될 집사들은 해도 괜찮은 겁니까? 정말 괜찮은 거예요?
집사들은 기도와 말씀사역에 마음을 다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얘기입니까?
사람인 한에는 어쩔 수 없는 것은, 이 음식을 나누어 주는 공궤하는 일, 이 일에 마음을 빼앗기면 기도하는 일에 마음을 다 쏟을 수 없고, 말씀사역에 다 마음을 쏟을 수 없는 것은 정해진 이치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은 하나인데 어쩔 수 없잖아요?
마음 뺏기는 일이 두렵기 때문에 집사들을 세웁니다.
그럼 집사들은 공궤하는 일에 마음을 다 뺏기고, 기도와 말씀에 관해서는 적당히 마음을 쓰면 되는 겁니까?
풀리지 않는 숙제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사역에 전념하겠다고 정신을 차린 것은 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초대교회가 교회로서 성립이 되는, 이 세상적 차원에서의 근간과 기반은 사도들이기 때문이에요.

사도들이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말씀의 내용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하나님이 그 주님을 오른팔로 살리셨다, 그리고 영광스럽게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셨다.' 이게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갖고 기도할 때, 이 세상일에 대해서 사도들의 마음이 꺼집니다.
세상에서 예수님께 보였던 그런 기적들과 그런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서 이루고 싶었던 모든 것들에 대해 꺼진 상태가 돼버려요.
자기들한테 능력이 왔거든요, 이제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면서 자기들이 야망을 가졌잖아요, 세상에서.
그런데 지금은 그 능력이 자기들한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대해서 끕니다.
십자가에서 죽고, 승천하신 주님 따라, 마음이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사도들의 마음이 천국으로 올라가서 세상에 대해 꺼졌을 때에,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켜지면서, 사도들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사도들의 마음이, 비록 그게 교회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에 빼앗겨서 기도가 지장을 받고, 말씀사역에 지장을 받게 되면, 교회의 근본이 흔들려 버리는 겁니다.

아! 여기에 아이러니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봉사와 구제는 교회의 일입니다.
근데 이 교회 일 때문에 교회가 뿌리째 흔들려 버릴 수가 있고, 교회의 존립이 위협을 받게 됩니다, 사도들의 마음이 거기에 빼앗겨 버리니까.
반대로, 교회 일이 아닌 교회 밖에서 사람들이 박해를 합니다.
이상하게 박해를 할 때 사도들은 더 믿음과 은혜가 충만해집니다, 더 강해집니다.
근데 교회 안의 일인데, 교회 안에서 일을 할 때에, 이 일에 마음을 빼앗겨 버리고 말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교회의 존립 기반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자! 사도들의 마음을 빼앗아서 교회 존립 기반이 흔들릴 때, 제일 좋아하는 게 마귀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의 봉사와 구제에 마음이 빼앗겨서, 내 마음이 기도하지 못할 때, 사도들의 마음이 기도하지 못할 때 좋아하는 게 마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단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중단한 그 일을, 뽑힐 일곱 집사에게 넘겨도 되는 겁니까?
일곱 집사는 그 일도 하고 기도와 말씀사역도 충분히 해 낼 수 있는, 사도들보다 몇 배 능력

이 있는 능력자들입니까? 아니면 안 해도 됩니까?
기도와 말씀사역을 사도들이 하는 것처럼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기서 잘못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어리석은 의도가 포함이 되는 겁니다.
본문에 보면, 5절에 '온 무리가 이를 기뻐했다'고 그래요.
온 무리가 이를 기뻐하면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테반과 일곱 집사가 나옵니다.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이런 사람들을 뽑았습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뽑아서 구제와 봉사를 담당하게 합니다.
이게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왜 어리석어요?
사도들이 믿음과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에 전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봉사와 구제를 그만 두었습니다.
근데 거꾸로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을 뽑아다가, 사도들이 성령 충만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중단한 그 일을 맡긴다는 게 말이 됩니까?
왜 자기들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그 일을 그만 두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을 뽑아 가지고, 자기들이 성령 충만하기 위해 방해가 되는 그 일을 맡게 합니까?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음식을 나누어 주는 일은 동회 서기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굳이 성령 충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믿음 충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교회라는 단체가 이미 있습니다.
그 단체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단체에서 하는 음식 나누어 주는 일이 그 조직이 해야 되는 일이라 그러면, 그 일을 맡기면 성령 충만 안 해도 할 수 있어요.
그 음식, 헬라파 과부들과 유대인 과부들에게 유대인으로서 기독교인이 된, 예수님을 믿게 되 사람들, 과부들 고아들에게 음식 나누어 주는 일은 성령 충만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일곱 집사를 뽑은 결과를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을 아무리 눈 씻고 봐도, 일곱 집사가 어떻게 현명하게, 헬라파 과부들이 다시는 이 매일매일 구제를 해 주고 음식을 나누어 줄 때 여기에서 누락되지 않게끔 조처를 취했다는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일곱 집사가 성령 충만해 가지고 지혜를 받아 가지고, 어떻게 불평 없이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게 음식을 나누어 주었다는 얘기가 기록이 안 돼 있고, 오히려 일곱 집사를 그런 의도로 뽑았는데, 교회 안에서 되어 질 일들을 위해서 뽑았는데, 실제로 사도행전이 기록하고 있는 집사들의 행적은, 사도보다 더 사도다운 사역에 대해서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보다 더 성령 충만해 버리고, 사도보다 더 강력하게 말씀사역을 하는 모습으로 기록 되어 있고, 우리가 읽은 본문에 뭐라고 기록 되어 있습니까?
'스테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며,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대적할 때에 복음을 변증합니다, 말씀사역을 합니다.
'스테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교회에 봉사와 구제를 아~무 불평 없게 잘해 나갔다' 이렇게 쓰여 있지 않은 거예요.
사도들과 똑같은 일을 하는 겁니다, 사도들과 똑같은.

그러므로 베드로와 사도들이, 자기들이 구제와 봉사 일에 연루되어 있을 때에, 기도에 방해가 되고 말씀사역에 방해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기도와 말씀사역에 전념하겠다고 한 것은 잘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꺼린 그 일을,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한 사람을 뽑아 가지고 맡겨야 되겠다고 한 그 생각은, 어리석은 생각 중에 어리석은 생각이었다는 겁니다.
교회에 오는 사람 중 그 어떤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기도와 말씀에 충만하지 않아도 될 사람은 없습니다.
교회는 뭐하는 장소냐, 모임이에요 모임.
교회라는 건 모임을 말합니다.
이 모임은 뭐하는 모임이냐? 기도하고 말씀 충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모임입니다.
어리석은 결정을 한 거예요.
자기들은 성령 충만과 말씀사역과 기도하는 데에 방해 되서 그만 둔 일을, 교회 내의 누구에게 맡긴다는 겁니까? 도대체 사도들이. 사도들이라고 하는 작자들이.
그래 온 교회가 기뻐했다는데, 이게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이지만 보세요!
벌써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서 빠진다는 것은 차별이 있었다는 겁니다.
차별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 간에.
헬라파 디아스포라로 유대를 떠났다가 다시 온 사람들에 대해서 차별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안에 그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 사람들이 모일 때, 어리석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뻐했다 그래요.
기뻐해 가지고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한 사람 뽑아다가, 거기다가 꼬나 박아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리석은 의도가 포함되어 있는 결정을 너무나 기가 막힌 결과로 바꾸어 버리십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바울, 12사도 중에 베드로 말고는 별로 행적이 기록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일곱 집사 중, 스테반과 빌립 집사가 아주 두드러지게 그 사역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음식 나누어 주고 있지 않았어요.
빌립과 스테반이 말씀사역에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해 가지고.
오늘도 성령 충만해서, 공회에 붙잡혀 온 스테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봉사와 구제의 일을 맡기기 위해서 사람들을 뽑았는데, 그 의도는 어리석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곱 집사를 제2세대, second generation의 사도들로 쓴 것입니다.
사도보다 더 사도답게 쓴 것입니다.
그리고 이 스테반과 빌립, 이 집사들이 무슨 일을 한 줄 아십니까?
12사도가 교회를 통솔하고 있을 때 말씀이 유대사회를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스테반 집사의 말씀사역을 통해서, 빌립 집사의 말씀사역을 통해서, 교회의 말씀전파가 유대사회를 넘어서 이방 사회로 확장되어 가는 전기를 이루게 됩니다.
하하하 통쾌한 거예요, 통쾌한 겁니다.
집사들이 나서가지고 이 유대사회의 경계 안에 갇혀 있는 복음사역을 깨버린 겁니다.
야~! 굉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집사님들이 한 일이에요, 집사님들이 한 일.
이방 세계로의 복음전파의 전환점이 바로 스테반 집사님을 통해서 이루어 진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우리 오해하면 안돼요, 오해하면 안돼요.
교회는 기도와 말씀의 장소입니다.
기도와 말씀에 방해가 되지 않습니까?
무엇이라도 다 중단해야 됩니다, 나 개인이라도 발을 빼세요.
교회 봉사와 교회 구제, 교회 프로그램에 충성하면 복 주신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그것은, 나쁜 거짓말이거나 목사님조차도 교회의 본질을 오해하시거나 몰라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세요, 교인들이라면.
말씀과 기도의 장소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 세상에 대해서, 내 마음을 끄는 장소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꺼야 될 사람들을 모아 놓고,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계획되어진 일들에 대해서 마음을 켜게 하는 일은, 하늘 백성의 마음을 교회의 당회가 도둑질하는 것이 됩니다.

교회 안의 프로그램과 계획과 여러 가지 행사나 봉사나 뭐 구제 이런 일들 때문에 교회들의 마음이 빼앗긴다.
예를 들어 주방봉사를 하게 한다, 예배가 하나도 마음에 들어와 있지를 않아요.
반찬은 뭐 할 것이며, 뭐 할 것이며, 어느 집사한테 뭘 맡기고, 뭘 하고… 정신이 없습니다.
교회라는 조직이 그분의 마음을 도둑질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을 끄는 일이 교회 모임이 존재하는 이유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교회에 모여서, 마음이 꺼질 때, 그 사람들의 마음 안으로 하늘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켜집니다.
하늘이 켜진 상태에서 각자 삶으로 돌아갔을 때, 그 삶의 현장은 전부 다, 하나님의 사역이 켜지는 현장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켜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켜집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켜집니다. 삶의 현장 하나 하나가.
교회가 모여서 구제할 필요 없어요, 교회가 모여서 봉사 하겠다고 교회 안에서 프로그램을 만들 필요 없습니다.

교회는 끄는 장소면 돼요.
기도함으로써 말씀 충만해 가지고, 십자가 말씀, 부활하신 말씀, 승천하신 말씀이 충만해 가지

고 세상에 대해서 끄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켜진 상태가 확인돼서, 모여서 뭐 합니까?
교제한다는 게 뭐에요? 김 집사님 마음속에 하나님이 켜져 있는 걸 보는 겁니다.
스테반의 천사와 같은 표정처럼, 표정과 말과 마음에서 풍기는 기운에서, 하나님이 켜지는 것을 확인하고, 또 그 김 집사님은 나에게서 확인하는 겁니다.
이러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하나님이 강화되는 곳이 교회면 되는 것이에요.
그 외에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선교와 봉사와 구제 이 모든 것들은, 삶에 나가서 두 세 사람이 모여 하건, 대여섯 사람이 모여 하건, 혼자 하건, 삶의 현장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모여 가지고 봉사와 구제와 모든 걸 다 하고 나면, 각자 흩어져서는 힘도 없어요.
이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섞여 사는 회사와 학교와 단체와 마을에서, 내가 사는 세상의 삶의 현장에서 봉사하고 구제하고 선교할 에너지 자체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 다 써버려 가지고.

여러분, 우결현결의 집사 선출의 역사!
우리는 이 장면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나갈 방향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목사님들 그렇게 해 보세요.
교회에 모여서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 붙잡고 기도하면서 끄는 일, 십자가 말씀을 전해서 세상에 대한 걱정과 근심과 야망과 야심으로 부글부글 타오르는 교인들의 마음을 끄는 일, 그래서 마음을 전부 구름 위로 이끌어 가는 일에만 주력하세요!
교회 방향을 그렇게 정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모여 가지고.
그것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보내 보세요.
교인 한 사람이 일당 백, 일당 천으로 세상 속에서 봉사하고 구제하고 선교해 나갈 것이에요.
왜냐?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켜지니까.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세상에 대해서 우리 마음을 끄고, 우리 마음을 구름 위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유는,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켜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과 지혜가 켜지시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밖에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에서 하나님이 켜져서 돼야 될 모든 일들을 교회 안에 몰아넣고, 사람의 힘으로 다 하게 해요.
봉사해라, 충성해라, 뭐 해라, 뭐 해라…
이게, 어리석은 정책이라는 거예요.
일곱 집사를 뽑을 때 사도들의 의도.
자기들은 꺼려하는 일을 교회 안에 그 누구에게도 맡기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하나님, 헬라파 과부가 구제에서 누락 되었습니다. 이 일이 잘 진행되게 해 주시되, 우리가 이 일에 연루됨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사역에 방해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잊어버리고 말씀사역과 기도에 전념하겠습니다.' 그랬으면 저절로 됐을 거예요.
전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께서 그날그날 필요한 사람들을 통해서 다 분배되게 하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니까.
일곱 집사를 그 일을 맡기겠다고 뽑아요? 자기들은 꺼려했던 일을 맡기겠다고 뽑아요?
이게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오는 그 누구도, 기도와 말씀 충만에 방해가 되는 일을 교회 조직으로부터 떠맡아야 될 사람은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세요?
교회 일 때문에 교회가 무너집니다.
교회 일에 마음을 빼앗기는 일이 생길 때, 마음이 구름 위의 하나님께 드려지지 못하고, 교회 안에 있는 일에 마음이 빼앗겨지는 교인들이 생기고, 목사님이 생기고, 당회가 생길 때, 이미 교회는 껍질만 교회가 되는 것이고 진짜 내용적 교회는 사라져버린 지 오래 될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교회를 보세요, 이게 교회인가 아닌가.

우결현결의 역사를 통하여 교회의 본질을 찾고, 교인의 본말이 전도된 삶으로부터, 본말을 정상적으로 되돌리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자극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교회 조직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지 모르겠사오나, 하나님께서는 가능할 줄 압니다.

본말이 전도된 상태에서, 제자리로 돌아오는 역사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